

2006년도 RI/방사선 전문강좌 교육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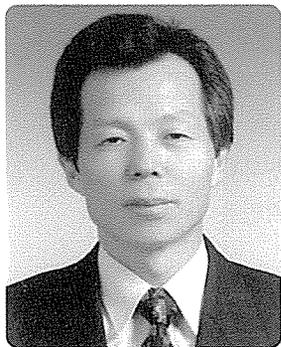
6월 21일(수)~23일(금)까지 협회 강의실에서 2006년도 상반기 RI/방사선 전문강좌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RT분야에 관심있는 학생 및 방사선작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관련 전문기술 습득, 안전 의식 고취 등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총 17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교육은 ▶방사선시설 제염 후 최종부지조사 방법론(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홍석) ▶원자력공기 정화시스템(한국필터시험원 강선행) ▶MCNP 이론 강좌(한양대학교 신창호)로 교육이 실시되었다. 한편 하반기에는 11월 22일(수)~24일(금) 제주도에서 동 강좌가 예정되어 있다.

유관기관 동정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초대원장에 이현규씨 임명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우식)는 원자력법에 따라 신설되는 원자력통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초대원장에 전 국립중앙과학관장을 역임한 이현규 원장을 6월 30일자로 임명한다.

이현규 초대원장은 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심사관

및 원자력국장 등을 거치면서 국가원자력통제업무를 총괄하였고, 국립중앙과학관장을 역임하면서는 뛰어난 기관운영 능력을 입증하는 등 오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통제기술원 설립초기에 기관의 위상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설립등기일인 6월 30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초대원장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대표하고, 통제기술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의 임면 및 지휘·감독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방사선산업학회의 창립

6월 23일 '한국방사선산업학회'가 국내 방사선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읍 방사선연구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 학회장으로 국일현 방사선연구원장을 선임하여 공식 출범했다.

국일현 방사선연구원장은 "지난해 방사선연구원 개소에 이어 한국방사선산업학회까지 정읍에 둥지를 틀게 됨에 따라 정읍이 명실상부한 방사선 관련 산업의 허브로 자리를 굳히게 됐다"며, "미래 국가 성장동력인 방사선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도 심혈을 기울

이고 있는 만큼 신산업 창출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학회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사선산업학회는 지난해 8월 방사선 전문가 83명이 발기인 대회를 개최, 한국원자력연구소 박경배 박사를 설립 준비위원장으로 추대한 뒤 10개월의 준비 끝에 학회로 출범하게 됐다.

박경배 준비위원장은 "방사선 이용 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와 개발된 기술을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산·학·연·관 전문가 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방사선 이용 기술 분야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학회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방사선산업학회는 국내학회 중 처음으로 주 소재지를 전북으로 정해 지방 과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방식 결정

- 1단계 10만드럼은 동굴방식으로 건설키로 -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경주시 봉길리 지역에 건설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1단계 10만드럼을 동굴방식으로 2009년말까지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동굴처분 방식은 지하 80미터 깊이의 바위 속에 수직원통형 인공동굴을 건설하여 폐기물 드럼을 처분하며, 지상에는 임시저장설비, 검사설비 및 처리설비 등이 건설되게 된다.

나머지 70만드럼은 1단계 건설경험, 향후 발생하는 폐기물특성 및 처분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자원부 이원걸 차관은 6월 28일 오후 2시 이중재 한수원(주)사장, 황주호 "처분방식선정위원회" 위

원장이 함께 참석한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이번 처분방식 선정으로 방폐장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상세설계를 거쳐 '07년말 공사에 착수하여 '09년말 준공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된다고 설명하고, 국내 최초의 방폐장인 만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여 건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유치지역인 경주시에 대한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하여 양성자가속기 건설협약 체결('06년 3월)하고, 특별지원금 3천억원 지급('06년 5월초)을 완료한데 이어, 한수원 본사이전 문제도 당초 계획대로 이번 8월말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10년 7월말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임을 밝혔다.

회원사 동정

한국원자력연구소

방사선 식품 조사로 단체급식 안전하게

- 집단 식중독 원인 지목된 노로바이러스 완전 제거 가능 -
- 미국선 2004년부터 학교급식에 방사선 조사 식품 공급 -

최근 30개 학교 2,000여명이 집단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상 최악의 급식 사고로 단체급식의 위생 문제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방사선 식품 조사(Food Irradiation)'가 단체급식의 안전사고를 근절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규) 정읍 분소 방사선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집단 식중독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방사선 식품 조사를 통해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연구소는 방사선 식품 조사 기술을 이용하면 노로바이러스는 물론 O-157, 살모넬라, 콜레라 등 다른 식중독 균도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자력연구소는 지난 1990년대부터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학교급식 등 단체